

투석 환자 치료 공백 막는다... 혈액 투석 전문의원 주사기 공급 핫라인 구축

- 대한의사협회-대한투석협회-주사기 제조업체 간 협약식 체결(4.15.)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월 15일(수) 오후 4시 30분 한국백신(경기도 안산시)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사기 제조·수입업체와 함께 중동전쟁으로 인한 주사기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혈액 투석 전문의원 주사기 공급 핫라인 구축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 (참석)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대한투석협회 김성남 중동 대응 비상대책위원장, 한국백신 하성배 대표이사, 필텍 한대식 전무이사, 성심메디칼 박영정 상무이사, 신창메디칼 강석창 상무이사, 정림의료기기산업 안정훈 대표이사 등

협약식은 중동전쟁으로 인해 의료제품 수급이 불안한 위기 상황을 정부의 지침이 아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투석협회, 주사기 제조·수입업체의 자발적인 협력을 통해 지혜롭게 극복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대한의사협회-주사기 제조·수입업체는 주사기 수급 애로 해소를 위해 6월 말까지 유통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혈액 투석 의원급 의료기관에 필요한 주사기를 공급하며 필요시 추가 협의를 통해 공급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주사기 공급 핫라인 구축으로 필수의료제품 공급 체계에서 최소한의 안전망이 갖추어졌다고 생각한다”라며, “정부는 현장과의 실시간 소통을 기반으로 생산원료 제공과 의료제품별 공급망 특성에 맞는 대책 마련 등을 통해 필수적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실 보건의료정책과	책임자	과 장	성창현 (044-202-2420)
		담당자	사무관	정재민 (044-202-2414)